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흑토끼의 해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2023년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전망

- 정부의 강한 회복의지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가파른 산업 성장세

3P

“다같이 만들어가는 안정되고 단합된 코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y 코참 홍선 회장

24P

☑ 2023 베트남 경제전망 KOTRA 하노이무역관	3
☑ 2023년 시행 예정 베트남 신규 주요 법률, 세무 이슈	7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11
☑ <코참 신임회장 지면인사말> 코참 홍선 회장	24
☑ <팀코리아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하영 소장 부임인사	27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한국관광공사(KTO)	29
☑ <월드옥타 하노이대회 총회 개최 이모저모>	32
☑ <법률> 베트남 민사소송 절차 전현우 변호사	36
☑ <법률 에피소드> 인수·합병(M&A)의 명암 김유호 변호사	38
☑ <통관> 박민설 관세사	4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닥농성>	42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지표	50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5



2023년 베트남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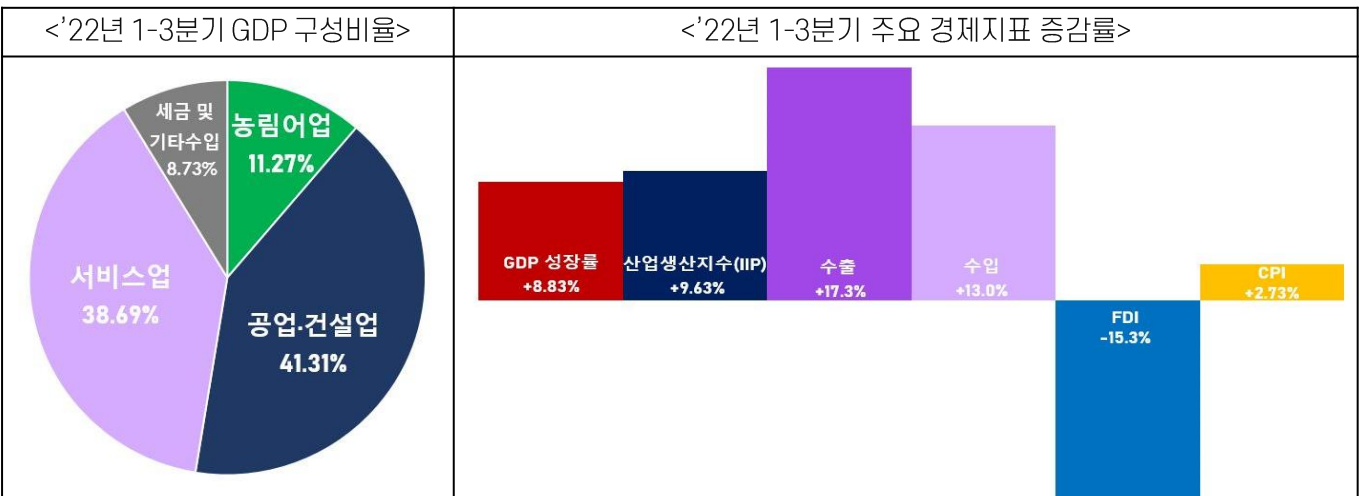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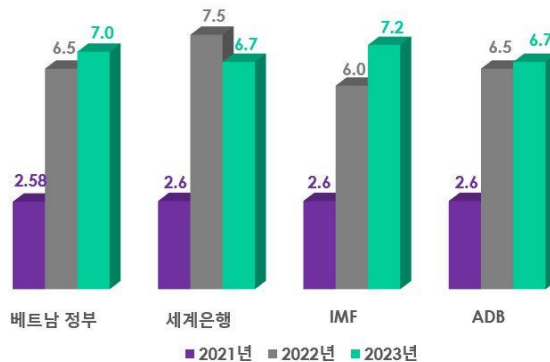
- 베트남 2023년 경제성장률 6% 이상 달성 기대
- 정부의 강한 회복의지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가파른 산업 성장세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세계은행, IMF 등은 202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최종 7.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추세,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의 경기 하방 압력과는 다소 상반되는 호조세이다. 베트남은 2022년 거리두기 조치 단계를 완화하고 생산재개를 실시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예측한 전망치인 6.5%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베트남은 코로나로 봉쇄했던 대내외 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1~3분기 동안 서비스업 10.57%, 공업 및 건설업 9.44%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오랜 코로나 기간의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가세 완화 정책(10%→8%) 실시, RCEP 발효('22년 1월)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의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세계 주요 기관은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역시 2022년과 유사한 6.7~7.2%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 성장 의지는 ‘사회경제적 지원 시행령(Circular No.126/CD-TTg)’, ‘공공투자 분배 촉진을 위한 결정서(Resolution No.124/NQ-CP)’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 및 개인에게 154억 달러 규모의 지원 시행령을 발표했다. 또한 공공투자 지출 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및 항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회경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이라 공표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2023년에도 7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및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베트남 정부는 자신감을 얻고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4% 미만 달성 및 거시경제 회복 지속, 제8차 국가전력발전계획 수행을 통한 2030년 발전량 145.9GW 구축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베트남의 무역 중국 의존도가 17~28%로 높아 글로벌 경기 위축의 타격을 받더라도 베트남의 경제는 5.5~6.0% 이상 견고히 성장할 것이라 자신했다. 이에 2023년에도 서비스업, 농수산업, 제조업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의 2023년 세 가지 경제 성장 전망 시나리오>

분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고
긍정적 시나리오	6.5% 이상	연간 물가상승률 4.0% 미만 무역수지 흑자일 경우
기본 시나리오	6.3-6.5%	중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전 세계 단기 경기침체의 경우
부정적 시나리오	5.5-6.0%	연간 물가상승률 4.5% 미만 전 세계 중장기 경기침체의 경우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023년 베트남 정부의 사회 경제 목표>

Targets	Year 2023	Targets	Year 2023
Growth rate of GDP	~6.5%	Percentage of poor households according to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line	~1-1.5% lower
GDP per capita	~4,400USD	Number of doctors per 10,000 population	~12
Shar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GDP	~25.4-25.8%	Number of hospital beds per 10,000 population	~32
Average growth rate of CPI	~4.5%	Health insurance participation rate	93.2% population
Average growth rate of social labor productivity	~5-6%	Percentage of communes meeting new-style rural criteria	78%
Share of agricultural labor in total labor force	26.2%	Percentage of urban daily-life solid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meets standards and regulations	95%
Percentage of trained workers	68% (*)	Percentage of industrial park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in operation with 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meeting environmental standards	92%
Urban unemployment rate	< 4%		

[자료원: 베트남 정부]



<2023 주요 이슈 1> 공급망 기지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로 제조공장 중단 및 물류차질이 장기화 되면서 베트남은 제2의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특히나 주요 경쟁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투자 유입 의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조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2022년간 주요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FDI 프로젝트가 다수 발표되었다. 덴마크 LEGO(장난감, 13억 2000만 달러), 싱가포르 Trina Solar Wafer(발전용 실리콘, 2억7000만 달러), Louvre(섬유, 2억1000만 달러), Coca Cola(음료, 1억3000만 달러), 중국 BW Bau Bang(부동산, 2억2000만 달러), 일본 Thang Long2 공단(부동산, 1억 달러), 중국 Autel Robotics Hai Nan(산업용 로봇 부품, 9000만 달러), HMT New Technical Materials(자동차 에어백, 7500만 달러)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2월, 싱가포르는 베트남 박장에 총 9750만 달러 규모의 물류 센터 투자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 LG 디스플레이도 21억5000만 달러의 투자증액을 발표했고 삼성전기도 12억 달러의 투자 증액을 발표하는 등 주요 기업의 공격적 투자세가 뚜렷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주요 이슈 2> 관광산업 회복 기대

2022년 1~3분기 동안 187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베트남에 입국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4배 증가한 수치이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 기간 해외 관광객 수인 1290만 명의 14.4%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항공라인 증설, 여행 프로그램 촉진 등 적극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1년 1월 매 10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국가 관광개발 전략(147/QD-TTG)’을 승인했다, 이는 ▲관광산업을 주요 경제부문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지향 ▲국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개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관광 개발 ▲국내 및 국제관광의 동시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2025년까지 5개년 계량목표로 총 관광수입 1700조~1800조 동 달성, GDP 기여율 14% 도달, 외국인 관광객 3500만 명 유치 및 관광경쟁력 지수 동남아 3위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3월 문호 재개방 후, 각 지방성의 관광객 유치 노력이 증가한 만큼, 관광산업의 회복이 기대되는 2023년이다.

<2023 주요 이슈 3> 신재생에너지 성장 기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2년 11월, ‘제8차 국가전력발전계획(PDP)’ 초안을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는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베트남이 선언했던 ‘2050년 탄소중립국 달성’의 연장선이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 공급원의 40%에 달하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39GW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2022년 1월 꽝지성 내 하이랑에는 23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1단계 건설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프로젝트는 120헥타르에 1500MW의 발전량을 목표로 총 23억7000만 달러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의 한국가스공사, 한화에너지, 한국남부발전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2022년 4월 도화엔지니어링은 광빈성 태양광 발전소(49.5MW급)에 5560만 달러를 투자해 준 공식을 실시했다. 또한 삼성물산도 베트남 건설업체 Lilam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8억3500만 달러 규모의 Nhon Trach 3, 4호 LNG복합화력발전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졌다. 향후에도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한국 기업에 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발전 직접투자 및 ② 전력 발전 프로젝트 EPC 수주, ③ 기자재 설비(보일러·변압기 등) 수출 등의 진출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주요 이슈 4> 통상협력 다변화 기대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일본,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인구 및 GDP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인 RCEP에 참여하였으며, 베트남에 대해서 RCEP은 공식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

그러나 RCEP 활용을 위한 국내법 마련에 지연이 있어 2022년 12월 중순 현재 RCEP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은 가능하나 수입 시에 RCEP 양허 세율 적용은 불가하다. 이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 RCEP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RCEP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에 있어 RCEP은 우리 기업들이 선택 가능한 관세율 인하 품목의 선택지를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RCEP 역내 국가 간 폭넓은 누적 기준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제3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RCEP 참여국 내에서의 수출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끝>



2023년 시행 예정 베트남 신규 주요 법률, 세무 이슈

- 2023년 베트남 경제, 사회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주목
- 한국 기업에 큰 영향 주는 주요 법률 개정은 2023년도에 본격 논의될 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예측되는 2023년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분야인 제조업 및 무역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문화 산업 등으로 사업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급성장하는 베트남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형 소매유통업, 전자상거래업, 외식업 등에서 많은 투자자금이 몰려드는 추세이다.

더불어 코로나 기간 동안 베트남 사업진출을 임시 보류하였던 한국기업 및 한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 사례 또한 특정 분야에 한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2년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베트남 주요 법률 중,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 및 재외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법률 및 세법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규 시행 법률

1. 지적재산권법(개정 2023.1.1. 시행)

2023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상 많은 내용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내 활동하는 많은 수의 우리 한국기업들도 해당 법률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 저명 상표(Well-Known Mark)의 정의: 베트남 영토의 관련 부문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의를 수정함. 다만, 저명 상표임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 등록 신청 전 이미 저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일 것이 요구
- 부정한 목적(Bad Faith): 상표 등록 거절 및 무효의 근거로 부정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

2) 특허권

- 특허 무효 사유 추가: 유전자 관련 특허에서 해당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 출원 후 수정 또는 보충의 내용이 원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특허에 관한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 제3자 이의신청: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베트남 특허청의 답변 의무는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이의 제기를 제도화함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의약품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 조약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도록 함.



3) 산업디자인권

- 산업디자인의 정의: 베트남이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는 제품 또는 복잡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양, 선, 치수, 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되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외관을 의미함.
- 디자인 공개 연기: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최대 7개월 동안 디자인 출원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새로 시행되는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내용 중 특히 상표권 출원 등록 시 약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등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그동안 先등록우선주의, 先제출우선주의를 채택해오면서 이에 다른 악성 상표 사냥 업체들의 악의적 상표 등록에 따른 문제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2.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 공식 제정(2022.10.1. 시행)

2022년 8월 15일 사이버 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Decree No.53/2022/ND-CP가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현지 데이터 저장 및 현지 사무소 관련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집, 추출, 분석 및 사용 과정에서 보호 대상인 데이터 및 정보 범위의 확정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가 베트남 역내에서 생성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간 관계에 관한 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 국가 기밀과 관련이 적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절차
- 특정 사업분야(원격 통신업, 인터넷 저장공간 서비스, 베트남 역내 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한 국내/해외 도메인 제공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중간 결제, 온라인 운송 중개업,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음성통화, 전자우편, 온라인 채팅 등의 메신저 서비스 등) 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역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점/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에 대해 규정

[사이버 보안법 관련 KOTRA 기사]

관련 기사명	링크(클릭 가능)	작성자
[기고]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동향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법무법인 로고스 김경섭 변호사
[기고]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법무법인 광장(호치민) 백웅렬 변호사

자료원: KOTRA 해외시장뉴스



3. 보험사업법(개정 2023.1.1. 시행)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베트남 보험사업법 제 4조 99항에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베트남 내 활동하는 외국계 보험사 지사는 베트남 역내에서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다음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매입
- 업무공간 또는 창고 등의 직접적인 업무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매, 투자 및 소유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
- 소유 또는 사용중인 미사용 사업장의 임대

베트남에는 다수의 한국계 보험사 및 외국계 보험사가 사업을 확장 중이며, 코로나 시기에도 호황을 보여준 산업 분야로 평가된다. 최근 급성장중인 외국계 보험사들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4. 영화법(개정 2023.1.1. 시행)

영화법이 기존 2006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여 오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film)의 정의를 규정하고 영화에 장편 영화, 만화 및 다큐멘터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
- 영화관 내 관객의 반입 금지 약물, 무기, 인화성 물질의 영화관 내 반입 및 질서유지 방해 행위가 금지
- 영화관 사업자는 노인, 장애인, 혁명유공자, 어린이 및 기타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 영화관람 표의 요금 면제 또는 할인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의 역사, 혁명 성과, 국가 영웅에 대한 모욕, 혐오 조장, 전쟁 선동 및 국가의 상징, 공산당기, 국기에 대한 모욕 및 불법적인 사항, 종교 또는 사상의 주입 행위가 포함된 영화의 배포가 금지됨

16년 만의 개정 시행되는 영화법에서는 베트남의 헌법, 국익, 통일성, 문화가치를 수호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영화법 관련 시행령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배포되는 영화 또한 베트남 정부(문화스포츠관광부)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규율하도록 법제화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신규 시행 세법

1. 투자기업 역외차입 등 외환관리에 관한 중앙은행 시행령(2022.11.15.시행)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년 9월 30일 Circular No.12/2022/TT-NHNN을 제정하였으며, 기존 규정 대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 및 보완하였다.

1) 역외차입 중앙은행 의무등록

- 중, 장기 역외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는 차입금 중 전체 대출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는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미상환 원리금이 남아있는 단기 차입(단, 인출시점에서 1년 초과 후 30 영업일 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역외차입 변경 및 잔액 등록(신고)

- 역외차입 등록허가서 및 변경등록 허가서 상 기재된 역외차입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매 분기별 신고→월간 신고)
-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은행 홈페이지 내 변경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 한다(최초 중앙은행에서 승인 받은 자금인출, 원리금 상환시기가 10일 이내로 변경되거나, 주소지 변경이 동일한 성,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3분기 법인세 예납액관련 시행령 변경(2023.1.1.시행)

연간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금액 대비 3분기 법인세 예납액이 최소 75%이상 되어야 하는 시행령 Decree No.126/2020/ND-CP이 개정되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 및 이익실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첫 3분기 동안의 재무상황을 근거로 연간 총 매출 및 이익을 예상하여 예납 법인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 시행령 Decree No. 91/2022/ND-CP는 과세연도 중 4개 분기의 총 법인세 예납액이 익년도 3월 말 까지 법인세 확정세액의 80%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 동 시행령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됨.
- 만약, 2021년 과세연도 중 개정되기 전 규정 Decree No.126/2020/ND-CP에 따라 7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받았던 법인의 경우, 개정 후 규정 Decree No. 91/2022/ND-CP에 따라 2021년도 중 8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Form No.01/GTCN 양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 지연가산세 감액신청을 하면 됨.
- 만약, 2021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감액신청 후 초과납부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관리법 No.38/2019/QH14 Chapter VIII 60조항에 따라 처리함.

3.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관련 세무상 비용인정 규정 변경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법인이 학자금(Tuition fees)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요건만 갖추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학교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상 비용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예규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Receipts)을 수취하여도 해당 영수증에 학자금 지원법인명, 주소와 Tax Code 그리고 금액, 학자금이라는 기재사항과 함께 은행계좌 이체 내역 등 필수증빙 요건만 갖추면 여전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시사점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총 4개로 보험사회법, 지적재산권법, 기동경찰법, 영화법 등이 있으며 투자법, 기업법, 수출입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2023년도에는 베트남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베트남 토지법 및 부동산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법률의 일부 시행령이 계속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법 개정안의 베트남 국회 통과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



2022년 베트남 전기차 시장 동향

- 베트남 완성차 업체 빈패스트(VinFast), 11월 25일 전기차 최초 미국 수출 기념행사
-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수출을 통해 베트남 전기차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22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동향

2020년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정부는 침체한 내수 자동차 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 등록비 감면 정책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면서 조업 및 생산 중단은 물론 소비도 다시 큰 폭으로 위축됐다.

또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일반소비자 자동차 운행 감소 등 내연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 침체를 경험했다.

베트남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베트남 내연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 침체를 겪는 한편,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유가 상승 및 유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내연 자동차 운행 감소와 더불어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역시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8월 5일 산업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40대, 2020년 900대에 그쳤다. 2021년 1분기까지도 600대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공무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기준, 빈패스트(VinFast) 이외에는 전기차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완성차 기업 역시 전무했다. 이에 대해 산업무역부는 '2025년 자동차 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2020년 900대, 2021년 1분기 6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2년 11월 기준 3000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조사 기관 6Wresearch에 따르면 2020~2025년 베트남 국내 전기차 시장 매출액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22.9%, 규모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1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전기차 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 역시 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토종 완성차 업체 빈패스트(VinFast)는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및 껀터 등 5개 지역 내 전기버스 운영을 위해 2019년 빈버스(VinBus)를 설립했다. 2021년 4월 하노이 첫 운영을 기점으로 하노이 시내 9개 노선으로 확대, 2022년 3월 호찌민 전기버스 운영 시작 등을 통해 주요 도시 내 전기버스 대중교통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하노이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총 85개 버스 노선 및 1100여 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2050년까지 모든 버스는 전기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녹색 에너지 이행 및 교통수단 탄소 배출 절감 등에 관한 시행 계획 로드맵의 하나로 베트남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선언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은 물론 탄소 시장 역시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 빈패스트(VinFast)

베트남 토종 완성차 업체, 빈패스트

빈패스트는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 빈(Vin) 그룹의 계열사로 2017년 설립 이후 애국주의 기반 마케팅 및 베트남 정부의 자국 완성차 우대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베트남 대표 완성차 기업이 되었다.

빈패스트,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 및 전기차 생산 집중 선언

2022년 1월 빈패스트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시설을 2023년 말까지 모두 폐쇄하고 전기차 생산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CES 2022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간 구별을 위해 기존 전기차 모델에 붙이던 문자 'e'(전기를 의미하는 Electric의 약자) 일괄 삭제 결정을 밝히며 전기차 생산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LA 오토쇼에서 선보인 SUV 전기차 VF e35 및 VF e36 2종의 모델명을 VF8 및 VF9로 변경했다.

SUV 전기차 VF8 모델 999대 미국 수출 최초 성사

지난 11월 25일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Hai Phong)에서 빈패스트 SUV 전기차 VF8 모델 미국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하이퐁 시 관세총국에 따르면 총 999대가 하이퐁 MPC항을 통해 출발했다. 이번 수출은 빈패스트 전기차 최초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베트남 토종 완성차·전기차 업체 최초 미국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국내 전기차 시장의 한계

내수시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빈패스트에 있어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다. The Diplomat에 따르면 빈패스트가 동남아 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결국 수요 문제라는 분석이다. 인구 1억이라는 잠재적 소비자층 덕분에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는 있으나 유럽 및 미국 시장과 베트남 내수시장의 크기는 아직까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시사점

베트남 국내 전기차 시장은 낮은 국민 소득으로 인한 낮은 수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전력 생산 등 전기차 수급보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시장 형성 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 전기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기차 등록비 면제 법안 Decree 10/2022/ND-CP, 전기차 특별소비세 절감 법안 03/2022/QH15 등을 수립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자동차 생산자 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에서 전기차 생산 촉진 및 소비 규모 증진을 위한 “National Automobile Development Strategy(2021-2050)”을 제안하는 등 생산 업계에서도 시장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화일로(惡化一路) 베트남 주차난, 스마트한 주차 플랫폼이 뜬다

- 정부·민간투자 저조에 따른 주차 인프라 제자리 걸음
- 대중교통 개발, 주차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반드시 수반되어야

흔히 베트남의 교통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보다면 가장 먼저 오토바이를 떠올린다. 베트남의 2020년 이전 연평균 오토바이 판매량은 약 300만 대로 인도(2,150만 대), 중국(1,550만 대), 인도네시아(638만 대)에 이어 세계 4대 오토바이 시장으로 분류되며 아세안 내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오토바이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베트남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오토바이 숫자는 약 6,500만 대 이상으로 베트남의 인구가 9,600만 명임을 고려하면 2명당 1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인구 절반 이상이 교통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부족한 주차 공간은 베트남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높은 인구 밀집도와 시내 교통량이 가장 많은 호치민시를 예를 들어보자면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갓길, 인도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곤 한다. 호치민시 도로교통국 Tran Quang Lam국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치민시의 주차공간은 250ha로 2013년 중앙 정부에 의해 승인된 호치민시 주차공간 계획의 1146ha와 비교해 22%에 불과하다고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전했다. 시정부는 계속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BOT, BOO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자 선정, 각종 인허가 지연 문제로 착공도 하지 못한채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회수 조치되고 있다.

스마트 주차 플랫폼의 등장, 주차난 대응방안 중 하나

이러한 주차난의 대응 방안으로 여러 신규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계 주차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플랫폼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주차 애플리케이션 모두의 주차장, 아이파크 등과 유사한 플랫폼으로 ① 사용자의 인근 주차장 검색, ② 주차요금 비교, ③ 운영시간 확인, ④ 실시간 주차 가능공간 모니터링, ⑤ 주차요금 할인 정보 등을 하나의 어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주차장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뿐더러 각 사용자들마다 고유 QR 코드를 발급, 결제 시스템을 전자지갑(E-Pay) 어플과 연동해 입차, 출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시사점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3,694달러로 나타났다.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오토바이는 베트남인들에 최적의 이동수단으로 꼽히며,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동 시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어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넘쳐나는 오토바이 대수만큼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 주차 플랫폼은 이러한 베트남의 실정과 운전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현지 시장을 공략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주차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장의 "익스텐션 암(Extension Arm)"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북부지방

- 2022년 베트남 북부 공급망 기지 동향
- 교통 인프라 바탕으로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자들의 목적지로 발돋움

베트남 북부지역이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자들의 목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2022년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등록자본 188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홍강 삼각주 지역 박닌이 총등록자본 17억8000만 달러로 전체 자본의 9.5%를 차지하며 3위에 올랐다. 타이응우옌, 하이퐁, 하노이, 박장 등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베트남 현지 부동산 건설링 전문기업 Cushman and Wakefield Vietnam은 베트남 북부 공급망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북부지방이 글로벌 공장의 "확장 팔"로 기능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설명했다.

인프라적 이점

- 1) 고속도로 :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베트남 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총 13개로, 총길이 895.8 km에 이른다.
- 2) 철도 : 베트남 북부지방 내 주요 철도 6개 정도이며, 그중 전체 국토를 연결하는 철도망은 산업 단지, 공항, 해안, 국경지대 및 주요 교통 허브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 3) 항만 : 베트남 북부지방은 2017~2021년 타 지역 대비 수출 운송 증가율이 154%로, 베트남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베트남항만협회에 따르면 꽝닌, 딩부(Dinh Vu), 하이퐁 등 주요 3개 항만 포함 북부지방 전체에서 총 2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가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4) 내륙 수로 : 도로, 철도, 항만 이외에도 베트남 북부지방에는 내륙 수로 운송망이 존재한다. 내륙 수로 운송망은 남북고속도로 및 남북선 운송량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일반 소비재 대량 운송에 활용되며 비교적 저렴한 운송 비용이 강점이다.
- 5) 항공 운송 : 북부지방은 또한 노이바이, 번돈(Van Don), 갓비(Cat Bi), 토 쉰언(Tho Xuan), 빈(Vinh), 디엔비엔(Dien Bien) 공항 등 특정한 항공 운송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 노이바이 국제공항에는 베트남 연간 선적 용량이 40만 3000톤인 화물 전문 터미널이 있다.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초기 투자

파나소닉(1971년), LG디스플레이(1995년), 캐논(2001년), 폭스콘(2007년), 삼성(2008년), 후지제록스(2013년) 등 세계적인 전자제품 업체들이 일찌감치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에 투자했으며, 최근에는 페가트론(Pegatron), 고어텍(Goertek), 진코 솔라(Jinko Solar) 등이 투자하고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 상륙했다는 사실은 이들 '대기업'을 위한 부자재 및 부품 생산 기업들을 유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2022년까지 베트남 국내 협력 업체 수는 삼성의 1.2차 협력 업체를 포함하여 총 250개사이며, 이 중 1차 협력업체는 52개사다. 이는 2014년 4개사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베트남 인쇄 잉크 시장 동향

- 하락세인 선진국과 달리 성장세인 베트남 오프셋 잉크 시장
- 베트남 인쇄 잉크 시장의 성장 방향은 고부가가치와 선진 기술 도입

시장 규모 및 동향

베트남의 인쇄 잉크 산업의 성장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년간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누적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도 관련 국내 기업들은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6개의 다국적 잉크 생산 업체와 수십 개의 국내 잉크 생산 업체가 있으며 베트남의 잉크 산업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5년간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선진국에서 오프셋 잉크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오프셋 잉크 생산 및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식품, 금속 및 플라스틱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그라비아 및 플렉소 잉크 부분의 생산 및 소비가 비교적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전망 및 발전 방향

인쇄, 포장 및 종이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Smithers Pira는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중국, 인도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플렉시블 패키징 제품에 대한 가장 큰 신흥시장으로 꼽았다. 플렉시블 패키징 솔루션은 최소의 비용과 낮은 환경 영향 하에서 편의성과 우수한 제품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가능성이 최적화된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체 플렉시블 패키징 밸류체인을 따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0년까지 베트남의 페인트 및 잉크 산업 발전 계획, 2030년까지의 비전'을 승인했는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도료-잉크 산업 관련해서는 생태 환경과 인간에게 유해한 원료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후된 기술과 장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선진 기술과 장비들로 대체해 가기로 했다. 또한 업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름 형성 플라스틱, 안료, 화학 물질 및 첨가제 생산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유통 채널

베트남의 인쇄 잉크 유통 구조에 있어 제조업체는 유통업체, 소비자 및 기업 고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영업점이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사 웹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Shopee, Tiki 또는 Lazada 등) 또는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대형 쇼핑몰이나 전통 시장과 같은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고객에게는 장기 계약을 통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는 베트남

- 국내외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행안 및 정책 마련에 박차

베트남이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국내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이행하면서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을 확립할 예정이다. 풍부한 산림 자원과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용의를 보이는 다수의 기업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탄소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시장 잠재력

Open Development Mekong Analysis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간 5,7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개당 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약 9억9,000만㎡로, 향후 10년간 최대 125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광남성 등 전국 23개 성·시에서는 탄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남부 광남성에는 총 62만8,000헥타르 면적의 숲이 있어 연간 약 1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이 국제사회에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에 대한 기대

현재 베트남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권 인증제도가 없어 서류 일체 및 프로젝트 승인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판매 및 양도까지 모두 해외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산림소유자들이 재정 관리 메커니즘은 물론 탄소배출권 실제 소유 및 거래 여부 확인, 배출가스 감축 인증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1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의정 Decree 06/2022/ND-CP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2020년 환경보호법 제91조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제92조 오존층 보호 및 제139조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및 발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다. 해당 법령은 또한 기업들에 시장 운영에 대해 안내하는 동시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공식 출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

베트남 탄소시장 및 배출 감축 목표 간 연계성

COP26에서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실행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에너지, 농업, 임업, 토지 이용, 폐기물 등의 분야 내 세부 전략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이다. COP26 2050년 넷제로 선언 이외에도 베트남은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글로벌 멜트다운 - 탄소배출 감소 약정,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공동 선언 등에 참여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 베트남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베트남에서는 빠른 출원이 중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베트남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성문법의 형태로 법령이 존재한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크게 지재권 일반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근간이 되는 지재권법과 하위 시행령, 결정문,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규칙들을 해석하는 하위 법률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베트남은 2005년 지재권법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 제정된 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 협약 체결에 따라 지재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2019년, 2021년에 크게 개정된 바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기관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기관이 존재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등록증명서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베트남 저작권청에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청(IP Vietnam)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대응 기관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 경찰 등이다. 시장관리국은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으로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 상품에 대해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제 경찰은 시장관리국과 더불어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하나로서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한 사건, 즉 대규모 침해, 조직적 침해,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해(제약, 식품 등) 사건을 주로 단속한다. 인민위원회는 시/성 단위로 존재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생산과 거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세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주로 국경에서 수출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벌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다. 등록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유통하거나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선출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기고]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동향

법무법인 로고스 김경섭 변호사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관련 최근 동향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국가 보안 보호 및 사회질서 안전의 보장과 관련 개인, 기관, 기업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사이버보안법 조항들 중에서 베트남에 진출 또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정부, 국기, 지도자 등에 대한 비방 정보, 정부에 대한 폭력, 반대 집회 등을 선동하는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제품, 화폐 등 관련하여 경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와 기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웹사이트, 포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금지
- 베트남에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금지 정보에 대한 시정 처리 의무: 사용자 계정 개설 시 사용자 정보 확인; 사용자 정보 및 계정 비밀 보호; 사이버보안 위반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관련 부서의 서면 요청 시 사용자 정보 제공; 공안부 관련부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 해당 정보 삭제 및 금지; 이와 관련된 내역(log)을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이버보안 위반 조사를 위해 보관; 베트남 공안부 또는 정보통신부 관련부서의 요청 시 사이버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를 올린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거부
-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의무: 베트남에서 개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들 관계에 대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 사용자들이 생성한 정보를 수집, 분석 또는 처리 활동을 하는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보의 베트남내 보관 의무 및 해외 기업의 경우 베트남 공안부 결정으로부터 12개월 이내 베트남에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은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돼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은 2018년 11월 2일 최초 버전이 발표된 이후 2019년 2차 버전이 나온 이후에도 외국계 기업의 부정적 반응, 의견 수렴 과정,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4년 가까운 상당 기간 동안 발효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무상 법령 규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15일에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이 베트남 시행령 Decree No. 53/2022/ND-CP(이하 "시행령 53")로 최종 승인되면서 전격적으로 2022년 10월 1일 자로 발효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이버보안법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외국계 기업들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고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의 최종 승인 및 1달여 직후 발효에 당혹감을 보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최근 동향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VECOM),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 전년 대비 15% 성장 발표

베트남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202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2020년 매출 132억 달러, 2021년 매출 137억 달러 등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백서(The Vietnam E-Commerce White Paper)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2.58%로 역대 최저치였음에도 전자상거래 매출은 16% 성장한 137억 달러에 이룸.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각종 프로모션 등 업체들의 플랫폼 활용도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요소로 작용함.

[VN Express, 12. 26]

▶ 2022년 베트남 농림수산업 수출, 530억 달러 달성 전망

2022년 베트남 농림수산업 부문 수출액이 53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시장 및 수출 상품 다각화에 따른 시장 확대가 주요인임. 베트남 수산물수출및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2022년 수산업 수출액 사상 첫 11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VASEP 무역진흥연수센터(TPTC) 레 항(Le Hang) 센터장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함. CPTPP 회원국 대상 수출은 30% 증가하여 베트남 수산업 수출액 중 26~27%를 차지함. 베트남 식품협회(VF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쌀 수출량은 7백만 톤임.

[VN Express, 12. 26]

▶ 삼성전자, 베트남에 동남아 최대규모 R&D 센터 준공

삼성전자 신규 R&D 센터는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이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연구소이자 동남아 최대규모 센터임. 총투자자본 2억 2천만 달러, 부지면적 11,603㎡, 연면적 79,511㎡의 규모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연구개발 센터로 이용될 예정임. 향후 생산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종합 전략 거점으로서 베트남을 활용할 전략이며, 삼성 이재용 회장은 베트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양국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움.

[Hanoi Times, 12. 23]

▶ 베트남, 수교 30년 만에 한국 최대 무역흑자국 및 주요 교역국 3위

2022년 대(對)베트남 한국 무역수지는 313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가 예상됨.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약 161배인 807억 달러에 이르렀음. 대(對)베트남 한국 무역흑자는 199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3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라디오 및 무선통신기기 등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 수출이 대부분임. 베트남 내 FDI 1위 국가는 한국이며,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규모는 9,203건에 걸쳐 785억 달러에 이룸.

[VN Express, 12. 23]



▶ 애플, 내년 베트남에서 맥북 생산 시작

애플은 맥북 생산기지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2023년부터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대만 업체 폭스콘(Foxconn)이 이르면 올해 5월부터 베트남에서 맥북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함. 애플은 2년 전부터 맥북 생산기지 일부의 이전을 계획한 바 있으며, 베트남에 테스트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음. 맥북을 시작으로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주력 제품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임. 한편, 폭스콘은 지난 8월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 50.5ha 규모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3만명의 근로자 고용 계획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VN Express, 12. 20]

▶ 베트남 섬유류 수출, 430억 달러 규모 달성 예상

베트남 섬유류 수출액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43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섬유류협회(VITAS)는 2021년 수출액 대비 20~40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하반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감소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주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출액 대비 9% 상승함. 2023년 수출 규모는 최소 450억, 최대 480억 달러로 예상됨.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주문 감소는 2023년 1~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VN Express, 12. 20]

▶ 베트남 재정부, 국내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제65호 개정안 제출

베트남 재정부는 국내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제65호(Decree 65/2020/ND-CP)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함. 시행령 제65호 개정안은 시행령 제153호(Decree 153/2020/ND-CP)를 일부 개정 및 보완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증권전문투자자 식별에 관한 규정임, 전문투자자 지위 부여 결정까지 최소 180일 이상 증권을 보유해야하며, 전문투자자 지위는 3개월간 유효 등 강화된 요건을 포함함. 개정안 시행은 2024년 1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사채 발행기업 신용등급은 2023년부터 평가됨.

[Vietnam News, 12. 16]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7.5%로 상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12월 아시아개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 보충 발표를 통해 2022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7.5%로 상향 조정함. 이는 작년 9월 아시아개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6.5%보다 1%p 상승한 수치임.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전 부문 경제 활성화로 인해 2022년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 8.8%를 기록함. 2023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교역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6.3%로 하향 조정하였음. 각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 등 아시아 전체 경제회복 저해 요소로 인한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Hanoi Times, 12. 16]



▶ 베트남, 수출입액 최고 기록 경신... 7,000억 달러 기록

베트남 세관 총국에 따르면 베트남 총 수출입액이 2022년 12월 기준 7,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지난해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함.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32개 품목이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6개 품목이 1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Vietnam News, 12. 16]

▶ 베트남 전기차업체 빈패스트(VinFast),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 가입

베트남 전기차 업체 빈패스트US는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USABC, USASEAN Business Council)에 가입함.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는 ASEAN 헌장에 명기된 미국 내 유일한 기업 관련 협의체임. 빈패스트US는 USABC 가입을 통해 미국 시장 및 아세안 국가 규제 관련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테드 오시우스(Ted Osius) 현 USABC 회장 겸 CEO는 전 주베트남 미국 대사로서 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빈패스트US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함. 빈패스트는 2022년 3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내 공장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미국 내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Vietnam Plus, 12. 15]

▶ 베트남 제조업체 길리멕스(Gilimex), 미국 아마존(Amazon) 상대로 2억 8천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베트남 내 아마존 협력업체인 길리멕스가 미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아마존을 상대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아마존은 지난해 길리멕스 상대 1억 4,660만 달러 규모의 상품 주문으로 최대 고객이며, 미래에셋 베트남 리서치(Mirae Asset Vietnam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길리멕스 매출 중 85%가 아마존 대상 수출액임. 길리멕스는 아마존의 요구에 따라 생산설비 및 자동화 물류창고 증설에 2014~2022년 사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최근 아마존의 갑작스런 주문량 감소 통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함. 아마존은 작년 4~5월 이후 수요 감소로 인해 2022년 및 2023년 주문량 감소를 통보함. 길리멕스는 아마존의 투자 요구로 인해 이케아 및 콜롬비아스포츠웨어 등 타 대형기업의 주문을 포기하는 등 신뢰 기반 파트너십 이행 내역을 강조함.

[VN Express, 12. 15]

▶ 하노이시, 2023년까지 1인당생산 6,250달러 목표

하노이시는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2022년 8.8%에서 다소 하락한 7%로 전망함. 그럼에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12월에 열린 2023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회의에서 2023년 1인당 GRDP 목표치를 예상치인 1억 4,200만 동에서 약 1억 5,000만 동(6,250달러)으로 상향 조정함. 쩐시탄(Tran Sy Thanh)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에도 정치·안보·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전세계적인 혼란과 경기침체 위험, 금융, 통화, 에너지, 식량안보 분야의 하향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장 둔화 또한 예상된다고 전함. 부흥탄(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지난 11월 "베트남의 2022년 GDP가 8%로 성장할 예정이지만 2023년 경제는 세계적, 국내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는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함.

[Vietnam Plus, 12. 13]



▶ 베트남 금값 2달 연속 하락세

지난 12월 15일 베트남 귀금속회사 사이공주얼리(Saigon Jewelry Company, SJC)에 따르면 금 가격은 0.44% 하락한 1테일 당 2,837.09 달러(6,670만 베트남 동)로 10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롬파월(Jerome Powell)이 내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글로벌 금 가격은 온스 당 0.9% 하락한 1,791.71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VN Express, 12. 15]

▶ 베트남 북부 엔바이성, 베트남 교통부에 공항 개발 승인 요청

엔바이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교통부(MT) 산하 민간항공국(CAAV)에 공항 개발 승인을 요청함. 2021-2030 국가 공항 개발 마스터플랜 중 기존 군 공항으로만 사용되던 엔바이 공항을 포함한 민간 공항의 취항 허가를 요청한 것임. 연간 80~100만 명의 여객 수송이 목표이며, 베트남 북부 공급망 활성화 및 지리적 이점 극대화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엔바이는 쿤밍에서 광닌으로 이어지는 중국 경제회랑의 한 지점으로서 북부 각 지역 연결 운송 허브로서의 잠재력은 물론, 무강짜이(Mu Cang Chai) 현 계단식 논, 탁바(Thac Ba) 호수 등 관광자원 역시 풍부함. 민간항공국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항공 취항에는 적합하나, 향후 사파(Sa Pa) 공항 완공 시 여객 및 화물 수송량 관련 협의가 필요함.

[Vietnam News, 12. 12]

▶ 철강 판매가 2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

베트남의 10월 철강 판매는 부동산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베트남철강협회(VSA)는 지난 10월 국내 철강 생산량이 200만 톤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고 전함. 판매량 또한 190만 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여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함.

[The Saigon Times, 12. 9]

▶ LG, 베트남 스마트폰 카메라 생산기지에 40억 달러 투자

지난 5일, 권봉석 LG 부회장은 베트남 응우옌 쉐옌 푸옥(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함. 푸옥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LG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자동차·휴대폰 부품 등 LG의 주요 분야 투자 확대 및 IT·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에서의 협업을 제안하였음. 한편, 푸옥 주석은 12월 4일~6일까지 3일 간 한국에 국빈 방문한 바 있음.

[Saigon Times, 12. 8]

▶ 베트남 쌀 수출 가격 세계 최고치 기록

베트남 식품협회(Vietnam Food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 쌀 수출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구체적으로 베트남 쌀의 5%는 톤당 438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25%는 톤당 418달러에 판매되고 있음. 이는 태국 쌀의 수출 가격보다 톤당 20달러 높은 가격임. 전문가들은 2023년 초에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Nhan Dan, 12. 5]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Nhon Trach 1 루프탑 태양광 프로젝트

□ Tuy An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투자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Nhon Trach 1 루프탑 태양광 프로젝트

발주처	○ 기관명 : Petro Power Renewable Energy Joint Stock Company (PV Power REC)
프로젝트	○ 현장위치 : Dong Nai 성 Nhon Trach 1 ○ 규모 : 약 4.4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FS 완료, 투자승인 대기중 ○ 세부내용 • Total Capacity: 3.2 MWp • Power generation in 1st year: 4.8 million kWh • Total solar panels: 6,636 mono-crystalline panels(485Wp/panel) • Total Inverters: 26 inverters(110kW ea.); 5 inverters (50kW ea.) • Transformer: 02 transformers(0,4/6,6kV-1,000kVA); 02 transformers (0,4/6,6kV-750kVA) • Expected COD : 2024 - 2025

□ Tuy An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투자

발주처	○ 기관명 :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 현장위치 : Phu Yen 성 Tuy An 구 ○ 규모 : 약 70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모집 중 ○ 세부내용 - Construction investment of 252MW of wind power & 250MW of solar power (250MW-AC) • The total land area: 409.8ha • The project expects to produce 1.45 million MWh/year in order to supply for Ammonia plant (963,430MWh/year of wind power and 493,920MWh/year of solar power). • The project belongs to Ammonia plant with capacity of 120,000 to 140,000 tons/year with electrolysis of water technology.



“모두가 화합하고 다같이 만들어가는 안정되고 단합된 코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15대 코참 홍선 신임회장(HSDC 대표)

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은 지난 12월 15일 롯데호텔에서 제15대 회장 선거 및 4분기 운영 위원회를 실시하고 홍선 HSDC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홍선 회장은 2023년 1월 임기를 시작하여 2년간 코참을 이끌게 될 예정이다.



홍선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당선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제 15대 코참 회장으로 선출된 홍선입니다.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 구독자분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다같이 만들어가는 안정되고 단합된 코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자 소감 발표 때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베트남 정부 및 각국 챔버들과도 두터운 관계를 형성해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지면을 빌려 지금까지 코참을 이끌어주신 역대 회장님들께 감사하며 특히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주신 김한용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참을 위한 공약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저는 1994년 베트남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지난 2007년부터 코참과 함께 해 왔습니다. 10여 년간 코참 사무국장, 5년여간 코참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주재 각국 챔버 (Chamber)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992년 5억 달러에서 시작한 한-베트남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21년 807억 달러를 기록, 161배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811억달러로 일본(784억달러)을 제치고 베트남이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내년까지 양국 교역액은 1,000억 달러,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 외국인투자자는 2021년 누계 기준으로 한국이 9,203건, 785억 달러로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에서 전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참 회원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회원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기업 고충처리 핫라인 개설 △ 세무, 관세 위원회 발족 △ 노무, 워크퍼밋, 비자/거주증 위원회 발족 △ 베트남 중앙정부/지방정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 지방기업에 찾아가는 세무/관세/노무 세미나 개최 △세계 상공인그룹과 연결 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첫째, 회비 대비 얻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 핫라인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소송건/파산신청 접수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세무, 관세 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들의 크고 작은 노무, 비자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무, 워크퍼밋, 비자/거주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기업에도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세무, 관세, 노무 세미나를 개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각국의 세계상공인 그룹과 연결하여 세계적인 무대에서 코참 회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대 코참 회장으로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국 기업인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코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데믹의 희망으로 모두 함께, 멀리 나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하영 소장 부임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사중재원 소장 유하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면으로나마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새로운 30년을 시
작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날개를 활짝 펴게 될 것이기
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올 한 해 더욱 새롭고 희망찬 마음으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1966년 설립 이래 ‘대안적 분쟁해결제
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정착과 확산,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각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조정, 알선 등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과 달
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역시 현지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분쟁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갈수록 커지며 계약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가 개소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 등 외국 당사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베트남의 법원 등 현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법체계와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법률파트너에 관한 정보마저 부족한 탓에 구제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고 수준의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임을 자부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현지 기관 간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하여 법원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재 능력과 그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중재서비스의 인지도와 명성을 끌어올리며, 분쟁해결 분야 최적의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베트남 양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2023년, 우리는 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잘해왔듯이, 우리는 앞으로의 30년 또한 잘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상사중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원만한 분쟁 해결의 플랫폼으로써, 더 나아가 분쟁 예방을 위한 믿음직한 파트너로써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엔데믹의 희망으로 모두 함께, 멀리 나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도 분쟁은 중재,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문화관광대전 스케치

지난 2022년 12월17일~18일 양일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인 ‘하노이 한국문화관광대전’이 펼쳐졌다.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동 행사는 하노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명소인 호안끼엠 호수거리가 K-컬처로 가득 찼던 대규모 야외행사였으며, 5개의 한국문화관광체험관이 구성되어 방문객 대상으로 케이팝(K-pop) 댄스게임, 한류퀴즈쇼, 지역관광거점도시(’20 문체부 선정-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 3D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특히 17일 개막식에서는 인기 케이팝 그룹인 ‘모모랜드’(MOMOLAND), ‘라필루스’(Lapillus), ‘블랭키’(Blanky) 등이 출연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2 한국문화관광대전(Korea Culture & Tourism Days)
- (일 시) ’22.12.17(토) ~ 18(일)
 - 한국관광홍보 부스 운영 13:00~19:00 / 중앙무대 행사 : (토)18:00~20:30, (일) 18:30~22:30
- (장 소) 호안끼엠 호수 분수광장 거리
-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원
- (내 용) 한국문화관광 전시·체험, 방문의 해 선포식, 축하행사 등

□ 한국관광 홍보부스 운영내용(총 5개 부스)

- ① K-Info Zone : 한국관광 종합관광정보 제공 및 방한관광 호감도 설문조사 실시 등 , ② K-Brand Zone :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홍보, ③ K-Tour Zone : 방한 관광 상담·판매, ④ K-Local Zone : 지방도시 유명관광지 3D 포토존, ⑤ K-Culture Zone : 전통시장음식/전통놀이/한류 홍보관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1일차 개막식 주요내용 및 사진

- 개막식 오프닝 행사 : 오프닝 세레모니, 비주얼 아트 영상, 한국 방문의 해 축하 영상
- 개막식 축하공연 : 모모랜드, 블랭키, 라필루스 등 K-Pop 가수 공연
 페인터즈, B-Boying(원웨이크루) 및 베트남 전통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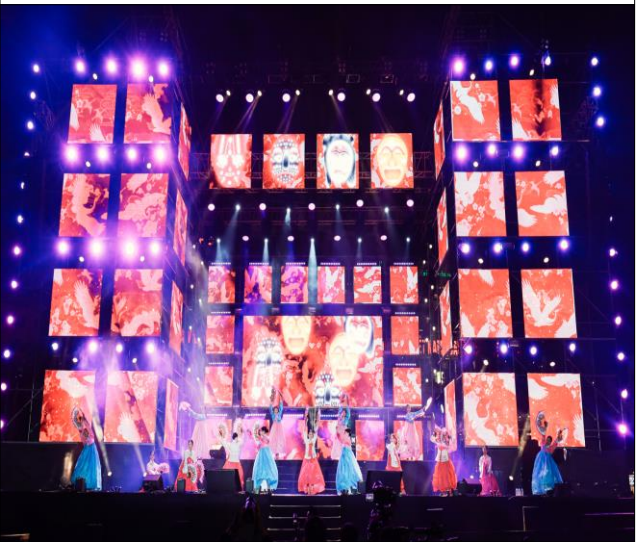
오프닝 세레모니



비주얼 아트 영상(광화문, 첨성대 등)



모모랜드(MOMOLAND)



베트남 전통공연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2일차 주요내용 및 사진

- 사전행사 : K-Pop커버 댄스 4개 팀 공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인기가수 공연 영상 상영
- 축하공연 : 랩비엣 출연진 랩가수(Phao, GDuckey) 및 베트남 인기가수(Noo Phuoc Think) 공연
- 폐막공연 : K-Pop EDM 공연



<K-Pop커버댄스>



<콘텐츠진흥원 영상>



<Noo Phuoc Think 공연>



<랩비엣 Gduckey 공연>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옥타 하노이지회 2022년 총회 개최 이모저모

- 김경록 지회장, 3대 지회장으로 1년 연임



월드옥타 하노이지회는 지난 12월 13일(화) 하노이 Ba Dinh Hotel에서 2022년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현황, 글로벌 마케터들의 지사화 사업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올린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지사화 사업 및 한국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제품들의 상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2023년 사업계획 발표

2023년 옥타 하노이지회는 1)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사업 노하우 공유, 2) 한국 지자체들과의 사업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 3) 베트남 봉사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 3가지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① (회원간 친목도모 및 사업 노하우) 회원들의 오랜 베트남 생활 및 사업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옥타 이외의 성공한 사업가 또는 베트남 사회, 경제 부분에서의 명사를 모시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40세 이하로 구성된 차세대 회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차세대 글로벌 무역 스쿨” 도 금년도 하반기에 “동남아 통합 무역스쿨” 로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참여 예정이며, 하노이 지회에서도 참여 할 예정이다.



② (한국 지자체들과의 사업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 2022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완도군 등의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했던 것처럼 베트남 유통 확대를 위해 많은 한국 지자체와 사업 제휴를 맺을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14일부터 충청북도와 사업 제휴 및 비즈니스 업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베트남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③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존에 코참을 통한 CSR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금년도부터는 많은 한국상품을 보유한 회원들과 함께 베트남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한국의 우수 상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렇듯 옥타 하노이지회는 단순한 모임에서 벗어나 각 회원들에게 실제적인 사업 형태를 제공하며 베트남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북과 협력사업

지난 12월 14일(수)-17일(토) 기간동안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노근호)가 도내 8개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옥타 하노이지회와 협력사업을 위하여 방문하였으며, 김치제품 2개사, 건강 식품(녹용, 홍삼제품) 2개사, 화장품 관련 2개사, 애완용품, 여성 생리대 등을 수출하는 국내사들의 상품전시회 및 상담회가 하노이 그랜드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동 기간 중 16일에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충북 도내 기업과 옥타 하노이지회가 베트남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다. 옥타 하노이지회는 이번 첫 수출상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충북 도내기업들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며,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베트남 내 한국의 우수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경제단체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경록 지회장 연임 포부

지난 2022년 총회에서는 옥타 제3기 김경록 하노이지회장의 임기가 2년만기에 도래하여, 신임지회장 선거가 필요하였으나, 출마자가 없어 지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전임지회장을 추대하였고 이에 김경록 지회장이 승낙하여 연임이 결정되었다. 김경록 지회장은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더욱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지회원들 간에 사업을 연계(MOU 체결, 한국 제품 유통 계약 체결 등)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베트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옥타와 옥타 하노이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1981년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 16개국 101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월드옥타는 41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67개국 141개지회, 7,000여명의 정회원과 26,000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성장했다.

월드옥타 하노이지회는 2019년 9월 재창단 하였으며, 2020년 김경록 대표가 월드옥타 하노이지회 제3기 지회장을 맡으면서, 내부로는 회원 확대 및 회원간 친목 도모, 대외적으로 한국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 제휴 등의 사업 영역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고문2명, 정회원 45명, 차세대 회원 3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노이지회는 짧은 시간내 자리를 잡아서 월드옥타 본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타 지회에서도 선망하는 지회가 되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에 힘쓰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끝>



베트남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간혹 베트남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베트남 법원이란 그 문턱이 아주 높고, 진행이 느리며, 때로는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재판과정은 여타 다른 행정절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느리고,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고, 더 불편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자소송제도를 비롯하여 국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사법부는 아직 인력,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못해 부득이 더 불편하고, 더 비효율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법치국가이며, 1억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장치로 법원을 통한 재판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의 개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어떠한 원인을 이유로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위로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잘 협의가 되어 손해를 배상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손해를 야기한 사람이 적절한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소송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3. 소송 개시 전 절차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청구 상대방인 피고에 대한 청구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일차적으로 법원은 소장 검토판사 1인을 배정합니다. 해당 소장 검토판사는 소장이 적절하다면 소송을 진행할지 또는 소장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지,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소장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적절한 관할권에, 적절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청구내용을 담은 소장이라면 소장 검토 판사는 소송 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해당 소송비용 납부 이후에 정식 절차가 개시됩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원고, 피고 및 관련당사자, 관할 관청에 소장 접수를 통지하며, 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배정합니다.

4. 1심 준비절차 및 소송개시

담당판사가 배정된 후 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를 피고에게 전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은 사건접수 이후 당사자들의 화의, 사건 심리중단, 1심 개시 중 1가지 절차가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즉 현재까지는 정식 1심개시라 할 수 없으며, 사전 소집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 개시 전 상호간에 합의로 분쟁이 종료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정식 재판이 개시됩니다.

정식 재판 개시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심리가 개시되며, 심리인단은 일반적으로 1명의 판사와 배심원 2인으로 구성됩니다.

재판 과정은 양 당사자의 변론,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은 15일 이내에 정당한 항소 청구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1심 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들 및 관련 기관 등에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전달되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은 당사자들 및 관련 기관 등에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끝>



인수·합병(M&A)의 명암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201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M&A가 상당히 활발했다. 그 당시 많은 M&A 업무들을 하다 보니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상장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수백억 원대 이상인 회사도 있었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에서 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내심 비상장 회사 사장님들이 부럽기도 했다.

그 후 M&A가 활발했던 시기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있었던 201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실이 있는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사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조건으로 M&A 시장에 나오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쪽이 매도자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매도자가 매수자를 골라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M&A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2010년경 M&A 업무를 하면서 부러워했던 그 사장님의 회사 이름이 자주 들렸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 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처음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그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해당 회사에 관심이 있는 매수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률 조연을 구하는 해당 회사의 투자자들이었다. 이분들을 보니 베트남의 M&A에 대해서 잘못 알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도에 대해서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진행한 상태여서 그때까지의 시간 낭비는 물론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며 사업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해외에서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순간에 회사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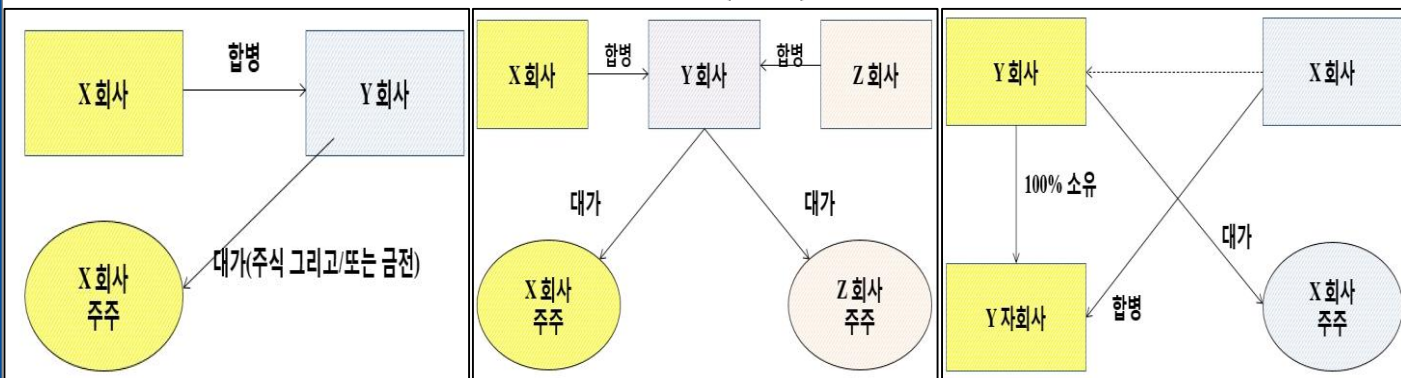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통상 M&A는 대상 기업을 탐색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후, 구체적인 M&A 방법과 대금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M&A는 종료된다.
- 자산 인수의 경우, 주요 자산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므로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합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 인수와 합병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인수 목적에 따라 인수의 구도나 방법이 달라지고 인수하려는 베트남 기업이 순수 베트남인 명의의 법인인지,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인지, 베트남인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법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달라진다.
- 베트남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거나 금지된 사업 분야를 포함한 회사를 인수할 때도 신규 법인과 동일하게 지분 제한이 적용되고 금지된 사업 분야는 포함할 수 없다.



- 100% 베트남인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분야를 포함해 인수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거나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대신 이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 명의의 회사를 인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M&A 시에는 우발채무와 계약채무의 승계에 대한 확인 외에도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과 수령, 토지, 공장, 근로계약 승계 등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산, 인·허가, 계약 등에 대해 별도의 이전과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 수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직접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이렇게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을 인수해 진출하는 M&A형 베트남 투자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 동일 업종의 타 기업을 M&A하는 수평적 M&A 외에도, 최근 베트남에서는 동일 업종의 다른 단계 소속 기업을 M&A하는 수직적(vertical) M&A와 타 업종 기업을 인수하는 다각적(conglomerate) M&A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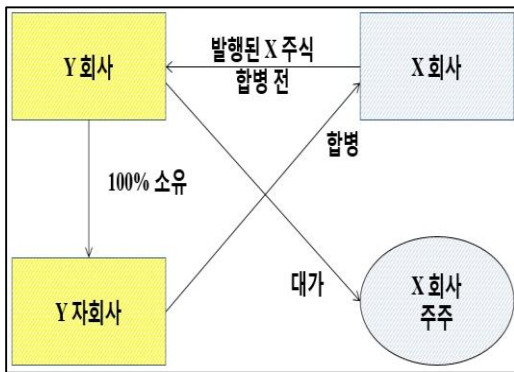
<다양한 인수·합병(M&A)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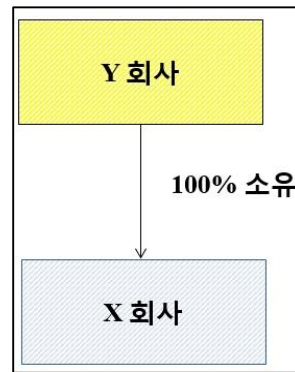
1. 흡수합병

2. 신설합병

3. 삼각합병



4. 역삼각합병-절차



4. 역삼각합병-결과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발췌하였습니다>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EPE 기업 수입 원재료의 판매 >

Q : 당사는 EPE 기업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그 상태로 다른 EPE 기업에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입 시 E11 코드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A : 해당 사항에 대해 현재 관세법 상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령 사항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E11 수입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EPE 기업의 원재료 및 소모품에 사용되는 거래유형 코드로, 해당 코드로 수입 후 그대로 원상태 판매를 하는 것은 추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코드로 베트남으로 원상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 변경 및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이후 판매가 되거나, 판매 과정에서 내국 수출입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베트남 국내 판매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9조 EPE 물품의 청산(Thanh lý hàng hóa của DNCX, Liquidation of goods of EPEs)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 79조 및 시행규칙 39/2018/TT-BTC 제 55조

1. EPE 기업은 다음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다.

-기계와 장비, 운송수단, 원재료 및 소모품과 수출과 베트남에서의 판매, 기증 및 폐기를 위한 기업 소유의 수입 물품

2. 청산 절차

a)수출방식으로서의 청산 : EPE 기업은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b) 베트남 국내로 판매, 증여, 기증 방식의 청산: 이 경우, EPE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

b-1) 용도 변경 방식을 선택한 경우 : EPE 기업은 신규로 세관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신고 당시의 세금 정책 및 관리 정책이 적용된다 (단, 최초 수입 당시 관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를 제외한다.). 세금 계산은 21조(용도변경 신고)의 신고 당시 과세가격, 세율, 환율을 따른다.

용도 변경 이후, 베트남으로의 판매, 증여, 기증 시에는 세관 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b-2) 86조의 내국수출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E 기업은 내국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내(베트남) 기업은 내국 수입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 수출 및 수입 시점에는 수출 및 수입 관리에 관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나, 최초 수입 신고 시점에 요건, 기준 및 전문 검사 대상에 해당하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기관의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c) 폐기의 방법으로 청산: 해당 시행규칙 64조의 절차를 따른다.



질문한 사항이 EPE 기업에서 다른 EPE 기업으로의 판매이기에, 아래의 제 74조 및 76조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참고가 필요합니다.

○ **74조 EPE 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일반 규정**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 74조 및 시행규칙 39/2018/TT-BTC 제 50조 1항

- 1항 EPE기업의 수출물품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규정에 따른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생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EPE 기업과 EPE기업의 상대방이 세관 절차의 이행 혹은 미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a) EPE 기업 간에 물품의 구매, 판매, 대여, 대차가 일어나는 경우. 물품이 EPE 기업의 임가공 계약에 따른 원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인 경우, 76조 3항에 따른다.

○ **76조 EPE 기업의 국내 기업으로의 위탁 가공, 국내 기업의 EPE 기업으로의 위탁 가공, EPE 기업의 다른 EPE 기업으로의 위탁 가공, EPE 기업의 해외 생산자로의 위탁 가공 시의 세관 절차**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 76조 및 시행규칙 39/2018/TT-BTC 제 52조 3항

- 3항 EPE 기업이 다른 EPE 기업으로 위탁 가공하는 경우(When an EPE hires another EPE as a processor). 이 경우 위탁 및 수탁 EPE 기업 모두 원재료 및 가공 계약에 따라 완성된 물품의 인도 및 수령 과정에서 세관 절차 이행의 의무가 없다.

74 조는 EPE 기업의 수출물품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된 물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 물품의 범주에는 비단 생산목적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소모품 이외에도 건설용품, 식료품, 소비재와 같은 물품이 속합니다. 74조 1항 및 a) 에 따르면 수입물품을 EPE 기업 간의 구매, 판매, 대여 및 대차 하는 경우에는 EPE 기업의 세관 절차 이행 여부 선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 항 단서에서 수입 물품 중에서 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의 경우에는 76조 3항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6조는 EPE 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EPE 기업, 해외 생산자로의 위탁 가공 시의 세관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만일 다른 EPE 기업으로 전달하는 물품이 EPE 기업 간의 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라면 세관 절차 이행 여부 선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4조와 76조의 규정을 종합할 경우, EPE 기업 간의 거래 물품 중에서도 초반에 임가공 계약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 및 소모품의 경우라면 만일 해당 물품을 다른 EPE 기업으로 임가공을 위해 전달한다면 세관 절차 생략이 가능하겠으나, 일반 판매 목적을 위해 전달 하는 경우라면 7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법령 상의 세관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EPE 기업으로의 임가공을 위한 전달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세관 절차가 없이 판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론적인 79조에서의 용도 변경 절차 이후 판매가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 Thư viện pháp luật, Doanh nghiệp chế xuất có được phép nhập nguyên liệu về bán lại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ác không?) <끝>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 - 닥농성

□ 닥농(Dak Nong)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6,514km² / 인구: 665,000명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닥농성은 서부고원지역[떠이응우엔(Tay Nguyen)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떠이응우엔(Tay Nguyen) 지역을 남부 주요 경제지역 및 중남부 해안 지역과 연결하는 무역관문임 * 꼰툼(Kon Tum)성, 잘라이(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럼동(Lam Dong)성을 합쳐 부르는 지역에 대한 명칭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닥락성(Dak Lak)성,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빈프억(Binh Phuoc)성, 동쪽과 남동쪽으로는 럼동(Lam Dong)성, 서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인접해 있음 닥농성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141km의 국경 및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두 개의 관문인 부프랑(Bu Prang) 및 닥프(Dak Per)가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닥락성 부온마투옛(Buon Ma Thuot)시까지의 거리: 120km(14번 국도) 빈프억성 동수아이(Dong Xoai)시까지의 거리: 130km(14번 국도) 호치민시까지의 거리: 230km(14번 국도) 럼동성 달랏(Da Lat)시까지의 거리: 160km(28번 국도) 빈투언(Binh Thuan)성 판티엣(Phan Thiet)시까지의 거리: 190km(28번 국도)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7.76% 성 1인당 GDP: US2,536 달러/년
경제규모('22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11.7억 달러 / 총 수입액: US 3.3억 달러
산업구조('22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20.08%, 서비스업: 37.18%, 농수산업: 39.49%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58.5% 도시지역: 15.38%, 농촌지역: 84.62% 남성: 53.64%, 여성: 46.36%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VND3,250,000= US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1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닥농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20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11.8백만 달러 규모 (한국) 닥농성 내 한국투자는 총 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8.3백만 달러,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이 투자한 전체지역(59개의 성) 중 46위 규모. 닥농성에 투자한 국가(7개) 중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4위



□ 투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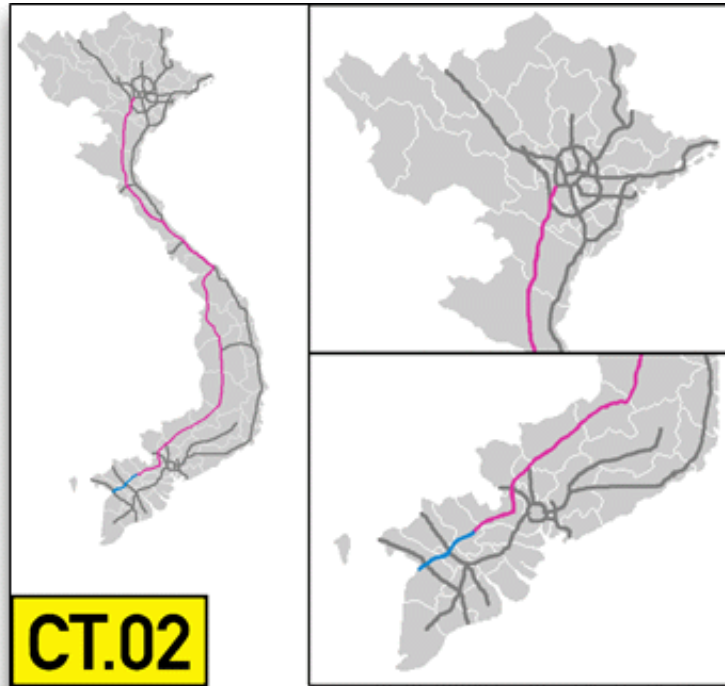


다농성의 위치 및 행정지도

○ 교통시스템

- **(도로)** 다농성의 도로 교통 시스템은 전국 타 지역의 지방성들과 연결되어 원활하며, 성 전체에는 총 300km 이상 길이의 3개 국도(14번, 14C, 28번)가 있으며 무역 촉진에 기여함.
- 14번 국도: 총 길이는 908km이며, 광찌(Quang Tri)성, 트어티엔후에(Thua Thien-Hue)성, 광남(Quang Nam)성, 띠이응우엔(Tay Nguyen) 지역 및 빈프억성을 포함한 8개 성을 관통함. 그 중 다농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154km임
- 14C 국도: 총 길이는 386.25km이며, 꼰똌(Kon Tum)성, 잘라이성, 락락성, 다농성의 4개 성을 관통함. 그 중 다농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169km임.
- 28번 국도: 총 길이는 309km이며, 빈투언성, 럽동성, 다농성의 3개 성을 관통함. 그 중 다농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174km임

남북고속도로(서쪽, 기호: CT.02)는 총 길이가 1,300km이고 다농성을 포함한 23개 성을 관통함. 그 중 락락성 부온마투웃시 - 다농성 자응이아(Gia Nghia) 고속도로, 다농성 자응이아 - 빈프억성 전타잉(Chon Thanh) 고속도로는 베트남 총리가 계획한 고속도로로 2030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농산물, 식품, 보크사이트 등 운송 및 지역 관광에 중요한 도로임.



남북고속도로(서쪽) 지도

- **(철도)** 2050년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 철도 네트워크 마스터 플랜에 대한 2021년 10월 19일자 총리의 제1769/QĐ-TTg 결정서에 따르면 띠에우엔 지역의 지방성을 연결하는 철도[다낭시 - 꼰똌성 - 잘라이성 - 닥락성 - 닥농성 - 빈프억성]는 2030년 이후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됨.
- **(항공)** 공항은 아직 없음

○ 관광

닥농성은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많은 폭포[드레이삽(Dray Sap), 자롱(Gia Long), 쩡느(Trinh Nu), 닥그룬(Dak G'Lun), 닥북서(Dak Buk So) 등] 및 자연 호수[페이닥밀(Tay Dak Mil), 축(Truc), 따중(Ta Dung), 닥니아(Dak Nia) 등]가 있음. 또한 성에는 40개 민족의 정체성이 깃든 역사 유적지와 전통 문화가 있어 닥농성을 관광 개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 있음.

닥농성에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남농(Nam Nung) 자연보호구역(12,300ha)과 따중(Ta Dung) 국립공원(22,100ha)이 있으며 스포츠 관광, 생태 관광, 휴양 관광, 영적 관광 등 여러 관광 유형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음.

특히 닥농지질공원(Dak Nong Geopark)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이 타이틀은 닥농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됨.



드레이삽(Dray Sap) 폭포



따중(Ta Dung) 국립공원



닥농지질공원

○ 천연 자원

- **(토지 자원)** 닥농성의 자연 토지 면적은 6,514km² 이상이며 그 중 농경지 면적은 5,458km²로 83% 이상을 차지함. 닥농성은 11개의 주요 토양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주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적황색 토양은 3,900km² 이상으로 성의 자연 면적의 60% 차지함.
- 황적색 토양 군: 끄쥬(Cu Jut) 현 및 그롱너(Krong No) 현의 동쪽, 닥르랍(Dak R'lap) 현, 튀득(Tuy Duc) 현, 닥그롱(Dak G'long) 현, 닥송(Dak Song) 현, 닥밀(Dak Mil) 현, 지응이아(Gia Nghia)시에 집중되어 커피, 고무, 후추, 과수 등 다년생 공예작물의 대규모 개발에 적합함
- 회색토, 흑토, 충적토 등 기타 토양 군: 식량작물, 콩류, 공예작물 등의 개발에 적합함
- **(수자원)** 닥농성에는 세레폭(Serepok) 강과 동나이(Dong Nai) 강의 두개 주요 강이 흐르고 있음. 또한 세레폭 및 동나이 강에 이어진 많은 하천이 있으며, 약 20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음. 모든 하천과 호수에는 연중 물이 있어 생산과 생활에 안정적인 물을 제공함.
- **(광물 자원)** 닥농성은 대규모 보크사이트 매장량(34억톤)을 보유하고 있음. 그 중 년꺼(Nhan Co) 보크사이트 광산은 2,864ha이고 추정 매장량이 43.7백만톤의 원광과 20백만톤 미세 광석인 것으로 예상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중앙정부의 공통 투자 인센티브 정책)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 의결서(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법인 소득세, 수입세 및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관한 인센티브 시행 안내 제83/2016/TT-BTC 시행령(2016.06.17)
- 기업의 농업 및 농촌 투자 장려 정책에 관한 제57/2018/ND-CP 의결서(2018.04.17)
-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

닥농성 전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에 속해 있어 투자법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수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 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수면 임대료 면제 경우: 특별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닥농성의 개별 투자 인센티브 정책)

- 닥농성 인민위원회의 제2120/QD-UBND 결정문(2021.12.01): 닥농성에서 투자 및 사업 프로젝트 실행 절차에 대한 지침
- 닥농성 인민위원회의 제42/2019/NQ-HDND 의결서(2019.12.11): 닥농성에 투자 장려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일부의 규정 수정 및 보완
- 닥농성 인민위원회의 제1815/QD-UBND 결정문(2018.11.14): 닥농성에 투자 장려 및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 시행 지침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2년 11월말까지 닥농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2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11.8백만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2년 11월말까지 한국투자는 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8.3백만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이 투자한 전체지역(59개의 성) 중 닥농성은 46위에 해당함. 닥농성에 투자한 국가(7개) 중 투자금액 기준으로 4위,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닥농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Asia Energy Co., Ltd	Asia Dak Song 1 풍력발전소	태국	73,634,783
2	Envision Energy (Hong Kong) Limited	Dak Hoa 풍력발전소	홍콩	70,608,696
3	Olam Viet Nam Co., Ltd	농산물 구입	싱가포르	29,606,962
4	Green Farm Asia Co., Ltd	돼지사육센터 사업 확장	태국	23,479,000
5	Hansol Homedeco Co., Ltd	하이테크 목제품 공장	한국	7,700,000
6	MJ Agri Vina Co., Ltd	원재료 생산 위한 조림	한국	7,698,695
7	MJ Agri Vina Co., Ltd	고품질 농산물 개발, 농산물 가공 및 사료가공	한국	5,300,000
8	Pagoda Food Industrial Co., Ltd	수출용 농산물 가공 공장	말레이시아	487,260
9	Neumann Gruppe Viet Nam Co., Ltd	Dak Song 현에 지속 가능한 로부스타 커피 생산 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창고 건설	독일	200,000
10	Thai An Food Agricultural Processing Joint Stock Company	농산물 가공 공장	중국	199,380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면적 (ha)	주요 정보	개발사/연락처
1	팜타잉(Tam Thang) 산업단지	17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끄쭈트(Cu Jut) 현, 팜타잉(Tam Thang)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응이아(Gia Nghia)시에서 110 km 떨어져 있음 • 입주율: 99,12% • 프로젝트 수: 44개(34개 운영 중, 10개실행 중) • 토지 임대료(인프라 포함): 0.3USD/m²/년 • 투자유치분야: 농림산물 가공, 비료 생산, 동물 사료 생산, 가전 제품 생산, 플라스틱 및 스테인리스 스틸 물탱크 등 	Tam Thang Industrial Zon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 84-2613 683 978, 84-2613 683 579
2	년꺼(Nhan Co) 산업단지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닥르랍(Dak R'lap) 현, 년꺼(Nhan C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응이아(Gia Nghia)시에서 17km 떨어져 있음 • 입주율: 86,5% • 토지 임대료: 무료 • 투자유치분야: 알루미늄 전기분해, 기계 제조, 보크 사이트 채굴 및 처리 위한 장비 수리, 알루미늄 전기 분해 사업 위한 기계 장비 제공, 알루미늄 제품 생산 등 	닥농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84-2613 544 591
3	년꺼(Nhan Co) 2 산업단지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닥르랍(Dak R'lap) 현, 년꺼(Nhan C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응이아(Gia Nghia)시에서 17km 떨어져 있음 • 투자유치분야: 보크사이트 채굴 및 처리 위한 지원 사업, 알루미늄 전기분해, 알루미늄 제품 생산 등 • 베트남 총리에 의해 2020년까지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추가되었으며, 현재 닥농성 인민위원회는 공단 설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닥농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84-2613 544 591
4	투언안 닥밀(Thuan An Dak Mil) 산업 클러스터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닥밀(Dak Mil) 현, 투언안(Thuan An)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응이아(Gia Nghia)시에서 60km 떨어져 있음 • 입주율: 93.7% • 1단계: 24.9ha • 프로젝트 수: 17개 • 투자유치분야: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 산업, 광물 산업 	투언안(Thuan An) 산업 클러스터 개발 센터 / 84-2612 240 555
5	BMC 산업 클러스터	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닥그롱(Dak G'long) 현, 닥하(Dak Ha)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응이아(Gia Nghia)시에서 9km 떨어져 있음 • 입주율: 8% • 토지 임대료: 0.34USD/m²/년 • 투자유치분야: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 산업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BMC) / 84- 913 690 057



□ 투자 유망분야

- 2020-2025년 기간 내 주요 경제 개발 중점
 - 알루미늄 생산 산업, 알루미늄 제련 및 재생 가능 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개발, 닥농성을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국가 중심지로 발전
 - 가치 사슬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응용 농업 개발, 산림 경제 개발, 약초 재배 및 가공, 핵심 농산물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임
 - 자연적 이점, 문화적 가치, 토착 생태 특성, 닥농지질공원 이용 기반의 관광 산업 개발

- 유치 희망 주요 투자 프로젝트
 - 닥르띠(Dak R'Tih) 호수 생태 관광 지역
 - 닥그롱(Dak G'Long) 현 따중(Ta Dung) 생태 관광 및 문화 지역
 - 년꺼(Nhan Co) 2 공단의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사업
 - 재생 에너지 전력 프로젝트
 - 친환경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 닥농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닥농성 투자진흥 및 기업지원 센터 닥농성 인민위원회사무소	Mr. Nghiem Dinh Hieu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822-264-848 • Email: ipcdaknong@gmail.com • Website: ipcdaknong.com.vn

<끝>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11. 20 기준 누계		2022.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511	80,801.36	375	930.76	4,124.67
일본	4,968	68,772.33	183	3,234.40	4,603.81
중국	3,541	23,109.57	248	1,287.00	2,247.35
싱가포르	3,070	70,749.45	248	1,974.25	5,776.40
대만	2,894	36,366.35	75	411.66	1,247.18
홍콩	2,149	29,211.73	120	917.82	1,938.55
미국	1,206	11,451.83	78	498.47	713
버진아일랜드(영)	889	22,358.46	23	189.4	510.84
말레이시아	701	13,060.35	37	9.24	184.8
태국	676	13,084.85	34	96.46	184.86
네덜란드	409	13,707.09	29	39.67	694.99
기타	6,095	54,845.34	362	1,932.01	2,908.78
합계	36,109	437,518.72	1,812	11,521.12	25,135.2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11. 20 기준 누계		2022.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893	259,163.68	444	6,517.40	14,964.31
2	부동산경영	1,067	66,192.93	67	1,703.38	4,188.7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3	38,315.70	9	2,098.87	2,259.45
4	호텔, 외식서비스	924	12,679.14	28	4.51	7.52
5	건설	1,784	10,895.02	30	93.84	231.53
6	도소매, 유지보수	6,082	10,199.74	542	292.45	917.4
7	물류운수	986	6,166.20	69	355.74	432.56
8	채광	109	4,900.37	1	1.98	19.06
9	정보통신	2,676	4,984.59	221	147.91	607.44
10	교육, 양성	623	4,590.56	31	11.39	251.2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4,090	4,723.48	299	219.85	1,027.14
12	농, 임, 수산	523	3,846.74	10	26.23	64.6
13	예술 오락	140	3,418.60	1	0.2	3.8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3,035.78	3	1.85	61.7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2.56	1	0.01	10.74
16	행정, 지원 서비스	556	1,014.57	48	22.52	55.12
17	금융, 은행, 보험	86	913.86	6	22.7	26.37
18	기타서비스	145	724.12	2	0.3	5.92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0.55
	합계	36,109	437,518.72	1,812	11,521.12	25,135.2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11(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3421.9
수 입	2530.7	2627	3322.3	3315.1
무역수지	111.1	199.5	40.8	106.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1(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54,89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50,741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42,021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34,645
신발류	18,320	16,791	17,751	22,032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14,687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4,287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10,864
수산물	8,543	8,412	8,886	10,170
원사(Yarn)	4,176	3,736	5,612	4,388
기 타	71,332	74,235	87,379	93,466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342,19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1(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76,07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41,64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19,714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13,666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11,664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11,107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8,572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7,509
화학제품	5,419	5,741	7,627	8,088
화학물질	5,128	5,016	7,735	8,537
기 타	95,110	92,412	119,600	124,943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331,51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1(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101,216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52,586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22,407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22,103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10,078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9,570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8,331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7,310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6,758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5,629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96,205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342,19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1(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109,462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57,650
3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21,106
4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21,496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13,464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12,842
7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9,451
8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8,439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8,656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6,365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62,582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331,51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1(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56,213(10.0)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24,850(14.1)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31,363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1(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14,792(17.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11,734(9.4)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3,302(216.1)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2,445(12.2)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2,162(-29.2)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2,040(-6.9)
철강판	474(23.3)	668(40.9)	673(0.8)	924(37.3)	1,097(30.6)
자동차부품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1,024(-10.5)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990(-7.4)
기타기계류	877(-38.6)	842(-3.9)	686(-18.6)	717(4.5)	760(18.1)
기타	16,571	16,619	15,420	17,279	15,867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56,213(10.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1(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5,723(11.3)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3,589(13.0)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1,803(20.3)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1,132(27.4)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878(33.1)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848(2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744(-7.2)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710(10.9)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611(9.1)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437(1.8)
기타	6,164	6,331	6,474	8,161	8,375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24,850(14.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2년 2Q	%	4.8	7.5	8.9	5.4	7.3	
	2022년 3Q	%	4.1	7.6	14.2	5.7	13.7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8월	-	126.3	10.6	131.1	N/A	13.0%
		2022년 9월	-	N/A	11.0	129.8	N/A	6.3%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8월	-	49.9	52.9	119.2	53.7	52.5
		2022년 9월	-	49.7	52.6	119.3	51.8	50.6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8월	-	110.3	N/A	98.4	117.2	N/A
		2022년 9월	-	N/A	N/A	N/A	120.3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4.5%	135.5	N/A	3.8%
		2022년 8월	-	98.2	N/A	168.1	4.6%	36.1%
		2022년 9월	-	N/A	N/A	169.4	3.7%	17.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N/A	1.8
		2022년 8월	%	7.5	6.3	4.5	112.9	3.9
		2022년 9월	%	6.7	6.9	4.0	112.8	4.3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3.8	9.2(누계)
		2022년 8월	%	N/A	N/A	12.3	5.0	△15.3(누계)
		2022년 9월	%	N/A	N/A	N/A	N/A	△5.4(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2년 2Q	%	2.2	5.9	3.9	N/A	2.3
		2022년 3Q	%	2.0	5.2	3.7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8월	%	21.8	7.1	30.1	20.3	10.3
		2022년 9월	%	20.1	20.0	15.0	11.9	4.5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8월	%	30.9	14.4	33.0	22.0	6.4
		2022년 9월	%	21.4	7.5	29.2	17.4	7.1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2023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와 인천테크노파크(ITP)는 2023. 4. 5 ~ 8.[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023 베트남 엑스포'에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박람회 개요

- 전시회명 :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 기 간 : 2023. 4. 5(수) ~8(토) [4일간]
- 장 소 :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 (91 Tran Hung Dao Str.,)
- 개최규모 : 약 16,000㎡
- 주 최 : 베트남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베트남무역진흥공사(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 VIETRADE)
- 홈페이지 : <http://vietnamexpo.com.vn/en>

2. 한국관 참가개요

- 참가규모 : 360s/m, 40개 부스
- 참가연혁 : 1999년 최초 참가 이래 24회째 참가
- 전시품목 :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건축자재, 섬유, 신발, 의료기기,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및 통신제품 등 종합품목
- 전시성격 : 1991년 최초로 개최되어 2023년 기준 32회째 개최 예정인 베트남 엑스포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25개 국내외의 해외기업 300여개사가 참가하는 베트남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

3.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12. 21.(수) ~ 2023. 1. 20.(금)

나.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함

- ① KOTRA 글로벌 전시포탈 온라인 신청 : www.gep.or.kr(글로벌 전시포탈)
 - GEP 접속→ 참가신청→ KOTRA단체참가→ 2023 베트남 엑스포클릭 → 첨부외 참가신청서 및 공고문 하단 [전시회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②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영문 혹은 베트남어 제품 브로슈어, 정부인증서(보유시 가점)
- ③ 참가신청금 입금 (신청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 미선정 처리)

기타 상세 안내문은 하기 링크를 통하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신청글로 이동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문의처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